

잭 블랙, 조기 은퇴? “영화 한 편 더 찍은 뒤 은퇴할 것”

한국의 유명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 더욱 친숙한 할리우드 배우 잭 블랙(사진)이 은퇴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집을 떠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은퇴를 생각한 이유 중 하나로 가족들에 대한 이유를 꼽으며 은퇴를 미루거나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0일 '데일리 메일'은 “잭 블랙이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겸 가수 카일 개스와 함께 테네이서스 디로 음악 활동도 겸하고 있는 잭 블랙은 최근 진행된 영화 '쥘만지: 넥스트 레벨' 개봉 기념 인터뷰에서 “Tenacious D 음반을 하나 더 낼 예정이고 그리고 영화는 1편 더 하고 일찍 은퇴를 할까 생각중이다. 내 나이 50이니까 아주 일찍은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쥘만지: 넥스트 레벨'이 내 마지막 영화가 될 것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집에 있던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잭 블랙은 “아내 Tanya와 아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LA에 살면서 TV 시리즈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

다”라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집을 떠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은퇴를 생각한 이유 중 하나로 가족들에 대한 이유를 꼽으며 은퇴를 미루거나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잭 블랙은 1992년 영화 '밥 로버츠'로 데뷔, 2004년 제13회 MTV 영화제 코미디언기상을 수상하며 미국의 대표 코미디 배우로 입지를 굳혀 나갔다. 그는 최근 영화 '쿵푸팬더3' '쥘만지: 새로운 세계' '벽 속의 숨은 마법세계' 등에도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활약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Walk of Fame)에 입성했다.

슈퍼엠, 미 빌보드200 역주행 방탄소년단도 재입성

그룹 슈퍼엠(SuperM)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순위를 '역주행' 했다.



슈퍼엠의 미니 1집 '슈퍼엠'은 10일 발표된 빌보드 200 최신 차트에서 직전주(168위)보다 39계단 상승한 129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9주 연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아 가수 데뷔 앨범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 곡 'Jopping' (자핑)을 비롯해 'I Can't Stand The Rain' (아이 캔트 스탠드 더 레인), '2 Fast' (투 패스트), 'Super Car' (슈퍼 카), 'No Manners' (노 매너스) 등 SuperM 일곱 멤버의 시너

지를 만날 수 있는 총 5곡이 수록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발매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도 같은 날 발표된 순위에서 193위를 기록하며 차트에 재진입했다. 이 앨범은 빌보드 진입 첫 주부터 1위를 차지하며 22주 연속 차트를 지켰고, 통산 29차례 차트 안에 들었다.

한편, 빌보드 200 차트 1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OST가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것은 2014년 겨울왕국 1편 이래 처음이라고 빌보드는 전했다.

'기생충' 골든글로브 3개 부문 후보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상의 감독·각본·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골든글로브상은 아카데미상(오스카)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전날 제77회 골든글로브상 감독상 후보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5명을 지명했다. 이 상 후보에는 봉 감독을 비롯해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1917'의 샘 멘데스 감독,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도 올랐다.

'기생충'은 감독상뿐만 아니라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베스트 모션픽처-포린랭귀지) 후보에도 올랐다. 각본상을 놓고는 '결혼이야기', '두 교황',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아이리시맨'과, 외국어영화상을 놓고는 '페어웰', '레미제라블', '페인 앤 글로리', '포르테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와 경쟁한다. '기생충'은 최고 영예인 작품상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상을 받을 경우 한국 영화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제77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베벌리 힐스에서 개최된다. 수상작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 93명의 투표로 정해진다.

1294호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운(運)의 변화에 순응(順應)하지 못한 사업결정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옛말에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매순간마다 생멸변화(生滅變化)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월의 변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한 때 잘나가던 사람도 흐르는 세월의 변화 속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세월을 잘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어느 날 50대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의 사업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서 찾아온 것이다. 필자가 그 분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그릇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재물(財物)은

있는 팔자가 되고 그래도 40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는 재산도 축적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도 정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특히 그럴듯한 유혹이 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벌이거나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신사분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철학원에서는 사업을 크게 밀어붙여도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기존의 격국용신(格局用神) 이론을 쓰는 역학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운(運)의 흐름이 사업을 크게 벌려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운(運)의 흐름은 마치 석양에 지는 해와 같아서 그 빛은 현란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어두운 밤을 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던 것이다.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 분이 잘나가던 사업을 모두 정리해서 무슨 독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전 재산을 투자 했지만 결국 자기가 투자했던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만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밖에 없는 운(運)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행(逆行)하는 처세를 할 때 그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